

14. 중매 결혼 Arranged Marriage

「내셔널 지오그래픽」 2011년 6월 기사의 시작 부분에 27세 남편 옆에서 포즈를 잡고 있는 8세 아내의 사진이 나왔다. 사진의 제목은 그녀가 결혼하기 2년 전 기억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내가 처음 그를 보았을 때 나는 숨었고, 그를 보기가 싫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중매 결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이다. 물론 위와 같이 사진에 나온 결혼도 중매 결혼이다. 그것은 강제적이며 불법이었다! 중매 결혼은 강요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몇 천년 동안 많은 문화 속에서 행해진 일반적인 제도였다.

중매 결혼은 결혼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배우자를 정하는 것인데 이로써 그들 사이의 교제 절차를 단축시킨다. 이것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행해진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해야 한다면 이는 강요된 결혼이다. 아래 내용은 지난 500년 동안 지속되어 온(강요는 아니지만) 중매를 통한 결혼을 묘사한 것이다.

20세기 중반까지의 일본

중매 결혼은 16세기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일본에서 매우 흔했고, 지금도 존재한다. 다음 내용은 문헌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몇 십년동안 사역하면서 실제로 목격하고 직접 중매자로 참여했던 선교사들로부터 나온 내용이다.

- **부모.** 아들이나 딸이 대개 20-30살이 되어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중매인’ (나코도)을 만나 중매를 시작한다. 결혼을 원하는 싱글들이 직접 나코도를 만날 수도 있다.
- **중매인.** 많은 인맥이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상당히 존경 받고, 나이가 있는 개인이거나 부부일 수 있다. 가문 사람이나 친구나 전문적인 나코도일 수 있다. 이들은 결혼 생각이 있는 사람의 간단한 신상정보 목록 (이름, 나이, 건강, 학력, 사회적 지위 등)을 수집한다.
- **예비 선택.** 부모와 결혼 후보자는 중매자와 만나 우선 관심이 없는 사람을 리스트에서 지운다. 선호 조건에 따라 남아 있는 목록의 순서를 정하고, 중매인에게 제일 선호하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다.
- **상세 조사.** 중매인은 부탁을 받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가문, 사회적 지위, 종교, 신체적, 정신적 가족 병력, 가족의 범죄 기록 등 ‘모든 것’을 자세히 조사한다. 그들은 흥신소, 이웃, 가게 주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이용 가능한 법적인 기록에서 나온 모든 것을 동원한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부탁한 가족은 가장 좋은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 **만남.** 두 결혼 상대와 그 가족이 모은 정보를 잘 숙지하고 서로 동의하면, 중매인은 두 가족간의 만남 (미아이;중매)을 주선한다. 대개는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할 수 있는 큰 호텔이 만남 장소가 된다. 만남이 끝날 즈음 결혼 예비 커플만이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자리를 뜬다.
- **결정.** 첫 만남에서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두 예비 커플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만남을 계속한다. 예비 신랑 신부나 가족 중 하나가 처음 만남과 그 후의 만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중매인에게 이를 알린다. 그러면 중매인이 상대 집안에 전달하고, 서로 집안 체면을 깎지 않고 다시 예비 선택 단계로 돌아간다.
- **약혼과 결혼.** 커플이 결혼을하기로 결정하면, 정식으로 약혼식을 하고, 나중에 결혼식을 한다. 결혼식에서 중매인은 예비 부부가 복도를 따라 행진하게 인솔해 주고 이것이 결혼식의 한 절차가 된다. 가족 사진에서도 신랑 신부 옆에 선다.

- **결혼 생활.** 중매인은 결혼 생활에 분쟁이 있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차이를 조정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전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참고하면 된다.
<http://en.wikipedia.org/wiki/Miai>

20세기 후반 일본 내 기독교 사역자

20세기 후반에는 일본도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낭만과 ‘사랑’을 통해 배우자를 고르고, 연애를 하는 서구의 모습을 따랐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결혼은 중매로 행해지고 있다.

젊은 남녀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 부모가 그들이 기독교 사역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 그런 부모는 자식의 배우자를 찾는 중매인 조차 거부한다. 이런 싱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중매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교파의 지도자, 목사, 성경 공부나 신학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이 중매인이 되어주도록 부탁 받을 수 있다. 부탁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에 교수나 선교 단체의 행정관은 그들 단체 내에 있는 싱글들이 좋은 커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살피곤 한다.

중매인으로 부탁을 받으면 선교사들은 흔쾌히 승낙한다. 학생들에게 직접 부탁을 받았으므로 서로 어울릴 만한 여성과 남성을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 시점에서 둘 중에 누구라도 진행을 그만 둘 수 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관계를 지속하면 이들 이 외에 누구도 이 사실을 알 수는 없다. 비로소 처음 회의에서 이 남녀가 같은 도시에서 사역하리라고 알려진다. 이 때가 바로 학생들이나 교수들에게 그들이 결혼한다는 것을 알리는 시점이다. 그래서 모두가 어디로 배치되는지를 집중해서 듣는다!

오늘날의 중매 결혼

21세기에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형태의 중매 결혼이 발달하게 되었다. 몇 백 개의 온라인 사이트가 있고, 전세계에서 수백만의 싱글 가입자가 있다. 소비자등급사이트는 이들 중 5개 최고 사이트를 선정했다: <http://www.consumer-rankings.com/dating/>. 그리고 처음 한달간 이용료가 \$40-\$50이라고 알리고, 오래 이용할 수록 이용료가 줄어드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짝을 맺어주는 기준도 매우 다양하다. 이들 중 최고 등급사이트는 match.com으로 2천 9백만의 싱글 회원이 있다.

eHarmony.com도 역시 최고 다섯 개 사이트 중 하나인데 선교사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이는 장기간의 교제에 강조점을 둔 사이트이며 신학대학원에 있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호환 가능한 29면이나 되는 질문지의 수 백 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을 통해서 싱글들을 서로 맺어주게 된다. eHarmony.com 는 200개 나라에서 2천만 명의 싱글 회원이 있으며, 해마다 4만 4천 건의 결혼을 성사시킨다(매일 120건).

‘중매 결혼이라는 것이 연애 절차를 줄여주기 위해 결혼 당사자들 이외에 누군가가(혹은 어떤 것이) 배우자를 골라주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고서, 온라인 중매 서비스의 맞는 단계들을 보자.

- **부모.** 결혼을 원하는 싱글 선교사들이 직접 중매인을 접촉한다. 부모가 관여하지 않는다.
- **중매인.** 중매인은 전세계에서 결혼을 원하는 수백만 싱글의 자료를 분석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 **예비 선택.** 모든 선택은 당사자나 부모와의 상담 없이 중매인(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다.
- **상세 조사.** 중매인(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추가로 진행되는 자세한 조사는 따로 없다. 모든 중매는 회원으로 가입 시 입력하는 신상 정보에 의존한다. 그 정보들은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거짓일 수도 있다.
- **만남.** 대개 호감 가는 상대를 이메일이나 전화로 먼저 접하게 된다. 직접 만나기 전에 스카이프를 대화하기도 한다.
- **결정.** 처음 대화가 긍정적이면 서로 통화를 계속하고 만나고, 사귀기를 지속할 것이다. 교제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한쪽이나 양쪽에서 관계를 그만둔다.
- **약혼과 결혼.** 이는 결혼할 커플이 알아서 할 일이다.

사람이나 컴퓨터를 중매인으로 쓸 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자.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 사람 중매인이 다양하듯,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도 다양하게 있다.
- 사람의 경우와 같이 컴퓨터도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추천해준다.
- 둘 다 정보를 제공한다.
- 둘 다 경비를 지불한다.
- 둘 다 모두 처음 것이 안되면, 다음 대안을 제공해 준다.

차이점을 본다면,

- 사람 중매인의 경우 주로 부모에 의해 고용이 되나 온라인 중매인의 경우는 부모가 관여하지 않는다.
- 사람 중매인의 경우는 인구가 적은 한 지역에서 선택하지만, 온라인 사이트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몇 백만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 사람 중매인의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나 온라인 중매 사이트는 회원이 직접 입력한 정보에 한한다.
- 사람 중매인의 경우는 일을 착수하고, 처음부터 당사자가 직접 만나게 하나 온라인 중매의 경우는 처음에는 이메일, 전화, 스카이프를 통해 만난다.
- 사람 중매인의 경우는 약혼, 결혼, 결혼 후까지 관계를 지속하나 온라인 중매의 경우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하나님은 결혼을 원하는 싱글 선교사들을 맺어주는데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이나 온라인 중매를 통한 방법이다.

† 이 브로서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